

작품 내용

제 목	도둑에게
내 용	그 밤, 창작자의 마른 손끝에서 내가 세상에 첫 숨을 내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엮어 만든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나는 눈부신 보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담을 넘듯 가볍게 마우스를 눌러 소리소문도 없이 나를 훔쳐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 당신의 행동으로 내 반짝임은 제값을 잃고 조각조각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훔친 것은 단순한 파일 한 조각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흘린 땀방울과 세상에 나를 내놓기를 바라왔던 간절한 시간까지 앗았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처럼 나를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나는 누군가의 영혼이 소중히 빚어낸 생명입니다. 정당한 문을 열고 당당하게 마주하여 도둑이 아닌, 나의 관객이 되어주세요